

근대 건축의 가치를 반영한 리노베이션과 보존에 관한 연구*

- 국내 1960-7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리노베이션에 관한 연구 -

Renovation and Conservation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Modern Architecture

- A Study on Renovation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of 1960-70s -

Author 최상기 Choe, Sanki / 정희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Abstract The early post-war modern architecture introduced to Korea in the 60's and 70's have reached its 50 year cycle to emerge as candidates for the registered heritage. However, conservation is a complicated topic when applied to modern architecture due to its social and political status among general public, and is often a sacrificial target for demolition or insensitive alteration. This research tries to identify significant values extracted from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 that can be applied to conducting successful renovation projects on modern architecture. The conservational values of modern architecture to be maintained are identified in this paper as: flexible open space, material and structural system, and extension of interior-exterior relation. These values are examined through the filter of comparative analysi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ervation standards, along with cross-examination on recently renovated local works performed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the period. This research aims to bring focus on conducting respectful conservation and renovation to modern architecture by identifying the significant values that is intrinsic to the modern architecture and is worth preserving.

Keywords 근대건축, 보존, 리노베이션, 오픈스페이스, 구조, 파사드, 곱마루
Modernism, Conservation, Renovation, Open Space, Structure, Facade, Ggummaru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을 문화재로 대하는 학계와 일반인의 관심이 전통 건축의 범위를 넘어 근·현대의 건축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지어진 국제주의 양식의 모더니즘 건축¹⁾은 문화재로 인식되기보다는 재개발 대상 혹은 도시의 흉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건축계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의 전용²⁾(轉用: adaptive reuse)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법이 건설 시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거론될 뿐, 근대 건축의 진정성과 가치를 반영한 전용설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의 모더니즘 건축이 50년 주기를 맞아 등록문화재 선정 대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 달한 지금,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내재된

건축물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건물의 내재적 의의와 그 중요한 가치(significance)가 보존되는 전용설계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도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1960-70년대에 지어진 모더니즘과 국제주의 양식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들은 그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보존³⁾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전용(轉用)

- 1) 모더니즘(Modernism) 건축의 시대적 분류체계가 아직 학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맥락에 따라 '근대' 혹은 '현대'로 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근대'와 '모더니즘'을 필요에 따라 병용하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건축에 종종 적용되는 '근대건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 2) 전용(轉用): 개수, 재생, adaptive reuse, 컨버전 디자인, 대수선, 리노베이션, 혹은 리모델링으로도 표기되는데 기존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에 맞추어 개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전용'과 '리노베이션'을 맥락에 맞추어 병용한다.
- 3) 여기서는 conservation의 의미로서 이보다 더 보수적인 차원의 보존 방식인 preservation과 구별하기 위하여 '보전(保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되기도 한다.(도쿄모모코리아,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 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문화재청, 2007.12) 그러나 더 이상의 용어 혼란을 막고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자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2010.10)에

* 이 논문은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건축 혹은 조적조 건축에 적용되었던 ‘원형 복원’의 보존 기준 외에는 달리 적용할 만한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근대 건축의 중요한 가치(significance)가 보존되는 리노베이션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근대 건축의 전용설계 과정에 그 중요한 가치가 반영되는지를 검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의의

리노베이션의 사례는 광범위하므로 모더니즘 건축에 내재된 중요한 가치와 보존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모더니즘 가치의 보존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원 건물과 리노베이션 설계 모두를 건축가와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전용(轉用)의 목적으로 리노베이션 설계가 진행된 1960-1970년대 국내 모더니즘 건축물들 중, 전문잡지에 ‘전용설계’의 사례로 소개된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설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고, 공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용된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상업적 혹은 개인적 가치에 의해 임의적으로 전용된 경우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건축물의 보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리노베이션 설계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개항기와 해방 전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전후(戰後) 본격적인 건설 활동의 결과물인 1960-70년대의 건축물들에까지는 아직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 향후 활발하게 진행될 모더니즘 건축의 전용설계에 보존기준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조명해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용(轉用)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근대 건축의 중요한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건축 이론과 국내외 보존 기준이라는 두 가지 리소스를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풀어나가려 한다. 우선 제2장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여러 중요한 특성들 중 리노베이션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가치 항목’ 들을 건축 이론과 문헌들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 건축 문화재의 보존 기준들이 근대 건축의 전용설계에 적용되는 양상을 비교 분석해본다. 비교 표본으로 삼은 보존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경우 문

화재청에서 발간한 등록문화재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였고, 국외의 경우 이코모스와 도쿄모모 같은 단체의 현장과 선언문들 중 근대 건축에 적용 가능한 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각 항목들이 실제 모더니즘 건축의 전용설계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2. 근대 건축의 보존 가치

2.1. 한국 근대 건축에서 보존의 과제

전후(戰後) 1960-70년대의 근대 건축은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의 복잡성 때문에 문화재의 관점에서 논의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의 근대성(近代性: modernity)은 정치적 맥락과 전통성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여있어서 보존의 필요성과 그 기준의 설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⁴⁾ 50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등록문화재 500여건 중 전후(戰後) 모더니즘(post-war modernism)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아직 10개에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도 건축의 가치보다는 해당 건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⁵⁾

이 시기 한국의 건축가들은 전후(戰後) 도시 재건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기술적 자신감을 반영한 과장된 노출콘크리트 구조체로 표현된 국제주의 양식과 브루탈리즘(Brutalism)의 건축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급속한 근대화를 모색하고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60년대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로 차용되고 도입되었고, 70년대에 와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대규모 신축의 필요에 반응하여, 외국에서 교육 받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건축의 경향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다.⁶⁾ 이와 같이 이 시기의 건축이 국제적인 모더니즘의 전개양상에 반응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때, 모더니즘 건축 이론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그 중요한 가치가 되는 물리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2. 가치 항목 1: 내부공간의 유연성 보존

브루노 제비(Bruno Zevi)가 내부 공간을 건축의 주인

- 4)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전이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3호 통권41호, 1992.03
- 5)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2002년부터 2013년 자료. 2013년 현재 등록된 일련 번호는 573호 까지인데 이 중 해당 시기의 건물은 역사적 사건(예:92호 구 중앙정보부 강당에서의 7.4공통 성명)이나 인물(예:413호 최규하 전대통령 사저)에 집중되어 있다.
- 6)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재원, 1996, pp.100-101, p.131, pp. 138-140

명기된 번역 원칙을 존중하여 ‘보존(保存)’으로 표기한다.

공이자 본질로 규정하고⁷⁾ 나서도 50년이 지난 지금, 원형 그대로의 내부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근대 건축과 만나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근대 건축에 전통적 의미의 보존 기준을 적용할 때 접하게 되는 난제 중 하나는 그 내부공간의 원형을 찾는 작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근대 건축은 내부 공간을 벽체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력벽 대신 경량의 구조체를 사용함으로써 구조체는 더욱 독립적이고 표현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한편, 내부 공간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건축은 처음부터 역사적 기념물이 되기 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하부구조)가 되고자 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용도로 전용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근대 건축 보존학자인 리차드 프루돈(R. Prudon)은 근대 건축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특성을 언급하며, 건축법규와 도시정책처럼 보존에 도움이 되는 각종 행정규범이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대 건축에서 실내공간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다.⁸⁾ 즉, 모더니즘 건축의 실내 공간에서 원형 복원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술한 전용설계를 가능하게 한 오픈스페이스의 유연성이 모더니즘 건축에 내재된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보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대 건축의 가치 항목 중 하나를 ‘내부공간의 유연성’으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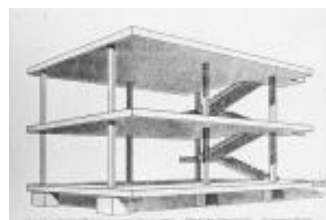
외피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기존의 보존 기준은 모더니즘 건축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 근.현대 건축은 더 이상 파사드(facade)의 건축이 아닌 그 내부 공간의 유연한 관계로 읽어내야 한다. 근.현대 건축의 보존에서 이러한 내부 공간의 특성이 무시된다면 그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3. 가치 항목 2: 구조체와 시스템의 보존

근대 건축이 건축사(建築史)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재료와 구법과 기술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시기의 건축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근대 건축에서 구조시스템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건축 역사학자인 프램튼(Kenneth. Frampton)은 국제주의 양식을 과거의 조적조 건축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전 시대 건축에서 중요시되던 입면에 의한 평면적 실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량 구조체(skeletal frame)와 최신 합성재료가 대신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평면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그림 1> 김광현은 모더니즘 건축을 어느 특정 시대와 연관 짓기보다는 근대 정신(modernity)에 근거한 건축으로 정의하며 그 특유의 메커니즘은 기계와 테크놀로지가 접하게 되는 구축의 원리에 의해 완성된다고 논한다.¹⁰⁾ 근대 건축의 원형과 그 활용 방안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주된 관심사가 그 기능과 기술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20세기 초반(한국의 경우 중반)에 지어진 건물들은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기에, 이 시대의 건물에 대한 보존과 재활용 또한 이전 시대의 건축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의 혁신은 구조시스템 외에도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전후 모더니즘과 브루탈리즘에서 건축 재료의 진정성에 대한 생각이 핵심적인 개념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은 구조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을 표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적용되었다.¹¹⁾ <그림 2> 모더니즘 건축에서 보존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파사드가 아니라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기술의 실험이 행해진 구조시스템의 구성 원리이며, 이것은 현 시대와 단절된 과거의 구법이 아니라 현재의 시공 현장에도 적용되는 기술의 원류였다는 점과, 이것의 보존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추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구조방식의 보존에 대한 기준의 마련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림 1> Le Corbusier, dom-ino house, 1914-1915



<그림 2> Royal National Theater, 1976 브루탈리즘 사례

전용설계 단계에서 원 재료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그 시대 기술력의 한계도 보존의 대상이 될

9)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1992, p.248
 10) 김광현, ‘근대건축’을 회피한 한국 현대건축의 과제, 창작과 비평, 2003.12, pp.325-326
 11)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1992, p.265 “1950년대 중반까지 브루탈리즘 건축의 핵심계율은 재료의 물성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구조적 요소들에 대한 집요하고 분절적인 표현을 통해 우선적으로 표출되었다.”

7) Zevi, Bruno, *공간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Space)*, 강혁 역, 명보문화사, 1983, pp.19-30
 8) Prudon, Theodore H.M., *Pre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2007,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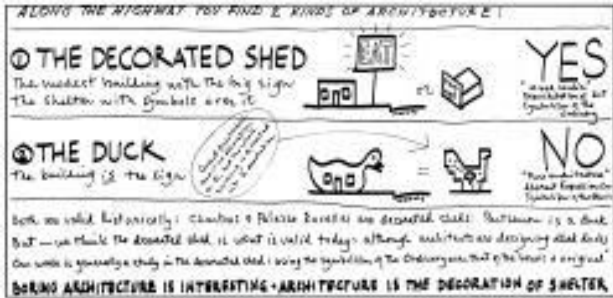
수 있다. 구조와 재료의 진솔한 표현에서 진실되고 윤리적인 건축을 추구한 전후 모더니즘 건축은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전후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서는 이러한 건축적 경향이 그 정신보다는 경제성의 이유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면이 있다.¹²⁾ 이 시기의 기술력에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면도 있었지만 초보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때로는 무리하고 과도하게 시도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기술력의 태동기에 나타난 각종 시행착오와 유형적 답습 또한 보존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Paul Rudolph, Yale Art and Architecture 1963



<그림 4> 나상진, 서울컨트리 클럽 하우스 (현 꿈마루), 1970



<그림 5> R.Venturi & D.S.Brown, duck and the decorated shed, 1970

2.4. 가치 항목 3: 외부와 내부의 연계성 보존

뉴욕근대미술관(MOMA)의 국제주의 양식 전시회 서문에서 서술하듯이 모더니즘 건축에서의 일차적 특성은 일체화된 덩어리에 의한 입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가벼운 표면이 채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특히, CIAM¹⁴⁾의 영향을 받은 1960-70년대의 전후(戰後) 모더니즘 건축은 르코르뷔제(Le Corbusier)의 후기 건축에 나타나는 beton-brut의 개념을 한 층 더 심화하여 적용한 뉴 브루탈리즘으로 대표되는데, 이 건축

양식의 특징은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을 거칠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조체의 입체성을 강조하여 파사드(facade)라는 개념이 파괴된 이미지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확장을 표현한 것이다.¹⁵⁾ 즉, 내부와 외부를 단절시키는 전통적인 벽체로서의 파사드 대신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에 막힘없는 연결을 유도하는 장치인 유리벽 혹은 장식적 표면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표면은 구조체와는 독립적으로 구획된 개구부에 걸쳐서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구조체로 대표되는 매스(solid)와 유리 표면으로 대표되는 빈 공간(void)이 대조를 이루며, 강한 음영의 이미지를 생산해내었다.<그림 2, 3, 4>

근대건축 비평가인 뱅햄(Rayner Banham)은 내부 공간을 배제한 순수 구조체의 표현과 재료의 순수성이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이론을 펼친다.¹⁶⁾ 이것은 파사드라는 평면적이고 표피적인 건축요소 대신 건물 전체 매스의 음영과 조형에 의해 형성되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건축의 표상적 기호로 인식된다는 맥락에서, 벤츄리(R. Venturi)와 스콧브라운(D. Scott Brown)이 '라스 베가스의 교훈'에서 'Duck'의 분류군에 해당시킨 건축물을 연상할 수 있다.¹⁷⁾<그림 5> 브루노 제비(Bruno Zevi)는 근대 건축이 갖는 이러한 '미완성'의 이미지를 통한 표현적 외관이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주변 환경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서술한다.¹⁸⁾ 이러한 건축물에서 평면적 파사드 보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매스(solid)와 빈 공간(void)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볼륨을 통해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계시키는 디테일이 근대건축의 외형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리는 근대 건축의 개구부 디테일을 에너지 보존과 환경적 퍼포먼스 면에서 판단하자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얇고 투명한 표면으로 건물의 외피를 만드려고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용적 관점으로 무감각하게 접근한다면, 비록 우수한 단열성능을 가진 외벽을 덧입힐 수는 있겠으나, 모더니즘 건축이 표현하려 했던 중요한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12)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6, pp.95-101: 60년대 한국의 노출콘크리트 기법은 재료의 순수성에 의의를 둔 브루탈리즘의 정신보다는 경제적 실효성이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대적 의장의 역할이 더 크다고 서술하고 있다.
13) Hitchcock, Henry-Russell & Johnson, Philip, The International Style, Museum of Modern Art, 1932
14) 근대건축국제회의(Congress International aux d'Architecture Moderne)

15)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1992, pp.262-266
16) Banham, Rayner, The New Brutalism, Architectural Review vol. 118, 1955.12, pp.354-361 (A Critic Wri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p.9-12)
17) R.Venturi, D.Scott Brown, S.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MIT Press, cambridge, 1977. 당 시대 근대 건축을 'Duck(오리)'와 'Decorated shed(장식된 헛간)'로 구분하고, 그 중 Duck 카테고리의 건물에 비판적인 관점을 집중시키며, Paul Rudolf의 브루탈리즘 양식 건축의 물리적 특성을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18) Zevi, Bruno,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8, pp.8-11

2.5. 소결

근대 건축의 진정성과 가치를 구별해내고 그 안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항목을 유추하려면 우선 그 시대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물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더니즘 건축에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항목 중 해당 시기 건축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을 (1)자유로운 내부공간의 유연성, (2)새로운 기술력의 표현, (3)내부와 외부공간의 확장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항목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상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건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도에 차이가 있다.

3. 근대 건축의 보존 기준

3.1. 지속적인 사용이 전제된 보존과 전용

제2장에서 설정한 근대 건축의 보존 가치 항목 즉, 내부공간의 유연성, 구조체의 표현, 내부와 외부 연계의 세 가지 기준이 현 시대의 건축에도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현대 건축(contemporary architecture)의 기본 원리가 아직 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건축은 단절된 과거의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기보다는 현재 삶의 방식과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대 건축은 보존의 대상일 뿐 아니라 현 시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효용성 때문에 근대 건축의 보존은 건축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고,¹⁹⁾ 근대 건축 보존의 범위가 단순히 원형보존 혹은 복원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용의 가능성까지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여러 문화재 보존 관련 단체들과, 문화재청의 주도로 준비되는 국내 보존 기준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근대 건축의 활용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의 문화재법과 지정문화재 제도 외에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는 목조 고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고 근대 건축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근대 건축의 활용과 보호는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에 의한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세계의 흐름과 사회적 반응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⁰⁾ 따라서, 근대 건축의 보존에서 그 가치와 기준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 문화재법에서만 해법을 찾기보다는 근.현대

19) 노정은·박찬일,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컨버전 디자인 수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2호 통권 61호, 2007.04, p.42

20) 이성호·오인욱,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에 관한 연구, 2011.02, p.1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경험과 원칙을 더 일찍 다루어 온 국제 단체들의 관련 정책을 살펴본 후, 국내의 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모더니즘 건축 보존의 보완 방향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국제 기준

모더니즘 건축의 보존, 수리 및 전용(轉用) 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과 논의의 중심에는 이코모스와 도코모모 같은 단체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다.²¹⁾ 이코모스 현장 중 '건축 유산의 분석과 보존 및 구조 복원의 원칙'은 건축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completeness)을 보존하기 위해 외관 유지의 차원을 넘어 실내공간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함은 물론, 그 시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구조체 보존의 중요성까지도 피력하고 있다.²²⁾ 또한 이를 위해 보존 작업 이전에 구조와 재료의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조체의 보존이 건물 전체의 보존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근대 건축물에서 구조체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원래 의도를 반영한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등, 근대 건축의 실내공간과 구조체 및 재료의 특성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권장하고 있다.

이코모스에서 발행한 문서들 중 근대 건축의 보존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마드리드 도큐먼트'는 20세기 건축 유산 보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20세기 후반 건축의 중요한 가치를 규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2.1-2.4절), 실내공간과 그 용도(1.2-1.3절), 구조시스템을 포함한 시공법과 실험적인 재료의 사용(제3장), 그리고 미학적 가치(1.1절)에 대한 보존을 언급하는데, 이 내용은 본 논문의 2장에서 설정한 근대 건축의 가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건축의 보존은 원형 보존 뿐 아니라 활용을 위한 전용(轉用)을 인정하되, 그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건축유산 보존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²³⁾

1990년에 설립된 도코모모(docomomo)가 아인트호벤에서 채택한 선언문은 근대건축이 그 안에 내재된 가치 즉, 기술적 혁신성과 그 활용의 가변성 때문에 그 어느 시대의 건축물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서

21)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와 DOCOMOMO(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 of the modern movement)

22) 2003년 짐바브웨에서 열린 이코모스 14차 총회에서 비준된 ICOMOS Charter-Principles for the Analysis, Conservation and Structural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23) ICOMOS, Approaches for the conservation of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heritage, Madrid Document 2011, 2011.6

술하며, 모더니즘 운동의 중요한 가치(significance)를 환기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원형보존보다도 그 가치를 보존하는 도큐멘팅에 더 큰 의미를 뒀으로써 그 활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²⁴⁾

3.3. 국내 기준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허가제가 아닌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2010년 3월 문화재보호법 제42조로 신설되었는데, 그 대상을 “근대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²⁵⁾ 등록문화재 활용의 기본 원칙에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보다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며 활용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어 보호와 활용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과, 한 시대의 건설 기술과 재료의 학술적 원칙까지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국외 기준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²⁶⁾ 또한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료와 구법 및 생산방식을 포함시키고 있고, 목조와 조적조 뿐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시도하고 있어서, 근대 건축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론에서 국제 단체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그러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목구조와 조적조에 비해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보존관리 대상에서 종종 누락되거나 제대로 적용시킬만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위의 내용이 아직 연구 용역 차

<표 1> 근대건축 가치의 보존과 전용설계에의 적용 양상

	자유로운 평면	구조체와 재료보존	내부외부 연계	전용을 통한 활용
이코모스 마드리드 도큐멘트 2011	실내공간과 그 용도 존중	구조시스템, 시공법 및 실험적 재료의 보존	미학적 가치 보존	전용을 인정하고 그 정도를 관리
이코모스 2003 짐바브웨 비준문서	실내공간 보존과 적극적 활용	구조체 보존, 재료 특성 보존	실내와 구조체의 특성 통합적 접근	
문화재청 활용계획 연구용역 2008	세부지침 부족	건설기술과 재료의 학술적 원칙 존중, 콘크리트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부족	보존과 활용이 병행 (등록문화재)

24) Henket, Hubert-Jan, The Idea of DOCOMOMO, 창립자 중 한 사람인 Henket는 docomomo에서 보존(conservation)보다 도큐멘팅(documentation)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명이 co가 아닌 do로 시작한다고 부연 설명한다.

25)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유산정보 목록. <http://www.cha.go.kr/> 다만, 여기서 분류된 ‘근대’에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의 전쟁문화재 등을 그 주된 범위로 다루고 있다.

26) 한국역사학회,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문화재청, 2006.12, p.8, pp.29-31

27)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 학술용역, 2008.2

원의 보고서일 뿐 공식적인 법령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4. 소결

제2장에서 건축이론의 분석을 통해 유추한 모더니즘 건축의 가치 항목들과 국내외 보존 기준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존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주로 원형보존과 파사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코모스의 몇 가지 도큐멘트에서는 앞서 분석한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국내 기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항후 국내 보존 기준 및 정책이 모더니즘 건축의 가치를 보존하는 장치를 보완하며 진화된다면 앞으로 양적으로 증가할 모더니즘 건축의 전용설계에서 그 가치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4. 국내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사례

제2장에서 살펴본 모더니즘 건축의 주요 가치항목과 제3장의 보존기준이 최근의 전용설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리노베이션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는 통계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서술한 모더니즘 가치에 대한 보존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즉, 1.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는 1960-70년대에 모더니즘 영향 하에 지어진 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전용설계 작품 중, 최근에 전문잡지에 게재되어 전용설계라는 주제로 공론화되고, 공공적 기능을 갖추어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건축물 중 최근 것을 선정함으로써, 모더니즘 가치의 보존에 대한 고민이 현 시대의 리노베이션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4.1. 꿈마루

(1) 자유로운 평면

이 건물은 1970년 현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던 서울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로 건축가 나상진(羅相振, 1923-1973)에 의해 지어졌다. 골프카트가 오르내릴 수 있는 램프 등 기능에 충실한 맞춤형 설계로 완공된 지 1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교양관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그 이후 40년간 전시장, 교육시설, 식당, 사무실 등의 용도로 계속 전용(轉用)된 전형적인 모더니즘 양식의 건물이다.²⁸⁾ 어린이대공원의 교양관으로 전용(轉用)되었을

28) 이행철·윤인석, 건축가 나상진의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2호, 2001.10, pp.578-579

당시에는 전시 파티션의 필요에 따라 클럽하우스의 넓은 내부공간 안에 벽을 세우고 천정을 막는 방식으로 오픈 스페이스의 의도는 상실되었었다. 그러나 2011년 건축가 조성룡과 최춘웅²⁹⁾의 리노베이션 설계에 의해 ‘꿈마루’로 재탄생하면서 줄어든 프로그램 면적 덕분에 비워내는 방식의 전용설계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리노베이션 건축가들은 새로 삽입되는 사무실 매스가 기존 건물의 넓은 공간의 연계성을 다시 분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직 벽면을 천정 구조체까지 올리지 않고, 붉은 벽돌과 유리라는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집속의 집’이라는 세련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내공간의 유연성이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그림 6>



<그림 6> 새로 삽입된 벽돌 파티션은 천정구조체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그림 7> 인장케이블이 받들고 있는 램프 구조체

(2) 구조체와 재료의 표현

수십 년간 구조 벽체를 덮고 있던 치장재와 락커룸 등의 상판이 제거됨으로써 원래의 노출 콘크리트 구조체가 다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개 층 사이의 수직적 연계를 위해 슬라브가 제거될 때, 기존의 기둥과 보의 골조(skeletal structure)를 그대로 존치했다는 점이다.<그림 8> 비록 원형 보존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원리와 시스템을 중요한 가치로 규명하고 보존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은 제2장에서 제시한 보존의 방향에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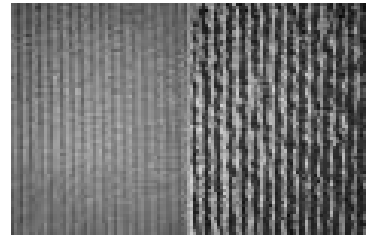
원 건물의 실험적인 구조시스템 중 성공적으로 보존된 것 하나를 뽑는다면 여러 가닥의 인장케이블에 의해 천정으로부터 매달려 있는 램프 구조물이다. 벽면으로부터 가장 멀어 모멘트 하중이 많이 걸리는 계단참을 천정에 달아매고 있는 인장케이블은 구조체가 노출되면서 함께 공간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것으로, 그 시대의 기술로는 과감한 구조적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다³⁰⁾.<그림 7>

실험성은 재료에서도 나타난다. PC 콘크리트를 이용한 수평 C-채널의 클래딩이 건물의 수평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일부를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구조시스템의 원리를 알기 쉽게 보존하였다. 또한, 여덟

개의 수직 구조체들에 새겨진 노출 콘크리트의 거친 텍스처는 수직성을 강조하며, 브루털리즘의 전형적인 외관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재료의 표현적 특성이 보존되고 있다.<그림 9>



<그림 8> 꿈마루 로비의 프레임과 노출된 구조체



<그림 9> 꿈마루(좌)와 Yale A&A Bldg. 벽디테일(우) 출처: 조한, HAHN design 블로그 (<http://blog.naver.com/jluke313>)

(3) 내부와 외부의 연계

건물을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과거에 로비로 쓰이던 곳인데, 교양관 시절의 막힌 외벽을 철거하고 원래 유리창이 있던 자리에 유리를 제외한 프레임만을 설치함으로써,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모더니즘 건축의 유리 표면이 파사드이기 보다는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되게 하는 장치였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외벽의 철거를 통해 매스와 빈 공간이 이루는 조화로운 총체적 이미지를 보존하려는 전용설계의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그림 8>

4.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 자유로운 평면

정립건축이 친환경 리모델링을 내걸고 리노베이션하여 2012년에 완공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구 문화관광부 청사를 골조만 남기고 창호와 배관을 전면 교체하여 전시시설로 용도를 바꾼 전용설계 프로젝트이다. 원래 문화부 청사는 바로 옆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961년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쌍둥이 건물로 완공한 후 각종 정부 기관들이 입주해 있었던 현대사의 현장이다.³¹⁾

옆에 남아있는 미국대사관 건물과 비교해서 보면 날렵한 수평 캔틸레버의 무량판 콘크리트 슬라브가 이 건물군의 핵심 건축언어이자 당당한 기술력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리노베이션은 관공서의 사무 공간으로 쓰이던 건물을 전시의 용도로 전용(轉用)하면서 가변적인 평면을 갖는 교육영역과 전시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된 작업으로 삼았다. 주기적으로 변해야 하는 전시 공간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가느다란 기둥과 무량판 슬라브

29) 조성룡: ubac(조성룡도시건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춘웅: 미국건축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0) 단, 시공과정에서 계단 참 밑에 철골 게이트가 임의로 설치되면서 인장케이블에 의해 떠있는 긴장감이 약화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31)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사색이 머무는 공간41, 42편: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와 미국대사관, 2010.8.8., <http://www.chpri.org/>

구조체는 가변적이고 자유로운 중성적 공간(neutral space)의 가치를 살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림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우:변경후)와 주한미국대사관(좌:변경전)의 슬라브 디테일

<그림 11> 수직적 개방감을 위해 구조체가 잘려나간 개구부

(2) 구조체와 재료의 표현

수직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 건물의 구조체에 큰 변형을 필요로 했다. 즉, 높은 천정과 중앙홀, 개방적 옥외계단, 공공성을 고려한 배경으로서의 입면 등을 이루기 위해 건물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슬라브가 부분적으로 철거되어³²⁾ 기존 파사드에 표현되었던 날렵한 캔틸레버 슬라브는 그 구조적 합리성을 잃게 되었다.<그림 10> 또한 이로 인해 약화된 다른 구조체들의 안정성과 추가된 전시하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둥에 단면중타 공법을 적용시켜서 초기의 가볍고 경쾌한 구조체 대신 두꺼운 기둥이 들어앉아 원 구조체에 적용된 기술력의 표현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3) 내부와 외부의 연계

또한, 광화문 광장에 중성적인 배경의 파사드를 만든다는 취지로 캔틸레버 슬라브 차양위에 U-글라스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 하나의 통일된 파사드를 갖게는 되었으나, 원래 건물의 수평 슬라브 차양이 만들어내는 깊고 강한 음영의 이미지와 수평띠창 아래에 위치하던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판넬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와 함께 내부와 외부의 연계 가능성을 표현하는 외형적 특성도 불투명 U-글라스의 스크린 뒤로 가려졌다.<그림 11>

<표 2> 국내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사례에서 보존 기준의 적용 양상

	자유로운 평면	구조체와 재료보존	내부외부 연계
꿈마루 2011 (원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높이 벽 • 재료 차별화 • 집속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케이블 보존 • 슬라브 제거시 보 존치 • PC 채널 존치 • 콘크리트 표면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덧댄 외벽 철거 • 로비 프레임으로 의미강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2 (원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으로 최소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량골조 보존실패 • 캔틸레버 슬라브 가림 • 수평차양 표현 상실 • 콘크리트 판넬 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띠창 가림 • U글라스의 중성적 표현으로 깊이감 상실

32) 김호·문정동·김대규, 프로젝트 리포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건축 2012.10

4.3. 소결

위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건물 모두에서 내부공간의 유연성이라는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가치가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는 수동적인 차원임에 반해, 꿈마루에서는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폭시키는 리노베이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꿈마루의 전용설계에서는 구조체의 보존과 공간의 연계라는 다른 가치들도 중요한 보존 전략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리노베이션 설계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한 설계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2>

두 사례를 통해 모더니즘 건축의 가치와 그 보존 기준이 실제 전용설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사례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더니즘 건축의 리노베이션을 통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더니즘 가치에 대한 보존 기준의 적용이 엄격한 기준보다는 리노베이션 건축가의 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모더니즘 건축이론의 관점을 통해 1960-70년대 근대 건축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자유로운 내부공간을 가능하게 하고, 구조시스템의 원리가 표현되며,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공간적, 기술적 특성을 모더니즘 건축이 지닌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더니즘 건축의 가치가 보존되는 리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위와 같은 가치 항목들이 잘 반영된 전용(轉用)설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보존 관련 주체들이 설정한 기준에 이러한 모더니즘 가치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존 관련 단체들의 현장과 지침서에는 전용설계에 적용될만한 근대 건축 보존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외 기준은 원형 보존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용설계에까지 근대 건축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모더니즘 건축의 범위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의 학술 보고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건축계의 실제 무대에서 근대 건축의 전용(轉用)설계는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분야로서 아직은 모범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일괄되게 적용되는 예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설계에서 근대건축의 진정한 가치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보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물리적 급성장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의 근·현대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철거와 재개발 중심이었던 도시 정책이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파사드 중심의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근·현대 건축의 기술적, 공간적, 양식적 특성을 살리는 개념 있는 리노베이션이 가능해진다면, 무분별한 전용의 위협에 처한 근대 건축물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회적으로 지속성 있는 도시환경을 일궈 나가는데 일조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6
2. 조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돌베개, 2013
3. Banham, Rayner, The New Brutalism, Architectural Review vol. 118, 1955.12
4.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1992
5. MacDonald, S., Normandin, Kindered, Con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Donhead, 2007
6. Henket, Hubert-Jan, The Idea of DOCOMOMO,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010 Publishers, 2000
7. Prudon, Theodore, Pre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2007
8. Stratton, Michael, Structure and Style: Conserving Twentieth Century Buildings, E.andF.N.Spon, 1997
9. R.Venturi, D.Scott Brown, S.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MIT Press, cambridge, 1977
10.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역, 명보문화사, 1983
11. Zevi, Bruno,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8
12. 김광현, 근대건축을 회피한 한국현대건축의 과제, 창작과 비평 통권86호, 1994.12
13.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전이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호, 1992.03
14. 노정은·박찬일,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통권61호, 2007.04
15. 서성호·박찬일,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7권 2호 통권9호, 2005.10
16. 이완건·조영배,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통권53호, 2005.12
17. 양준모·심우갑, 근대건축물 보전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7권 1호 통권 51집, 2007.10
18. 이성호·오인욱,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1호 통권84호, 2012.02
19. 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3호, 통권209호, 2006.3
20. 이행철·윤인석, 건축가 나상진의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2호, 2001.10

21. 최효식·우승현·윤혜경, 현대 한국영화속 공간의 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4호 통권 99호, 2013.08
22. 김호·문정동·김대규, 프로젝트 리포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건축 2012.10
23. 도쿄모모코리아,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 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문화재청, 2007.12
2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문화재청, 2006
25.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2010.10
26. 한국역사학회, 근대문화유산보존및 활용사례, 문화재청, 2006.12
27. DoCoMoMo Eindhoven Statement, 1990
28. ICOMOS Madrid Document: Approaches for the Conservation of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al Heritage, 2011
29. MacDonald, Susan, Modern Matters: Breaking the barriers to Conserving Modern Heritage, Conservation Perspectives, Volume 28,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Spring 2013
30.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사색이 머무는 공간41, 42편: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와 미국대사관, 2010.8.8, <http://www.chpri.org/>

[논문접수 : 2013. 12. 22]

[1차 심사 : 2014. 01. 21]

[2차 심사 : 2014. 02. 02]

[게재확정 : 2014. 02. 12]